

# 광주서 ‘또’ 청소년 집단폭행...학부모·학생 ‘불안’

지난 4일 광산구 모 아파트 내 축구장에서

‘상급생’ 약 10명 초교 1학년 둘리싸고

“왜 들어와” 구타...최근 광산서에 진정

최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학년 무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북구 신원동에서도 다수의 중학생이 또래 한 명을 때린 후 스마트폰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광주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1 아동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이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초등학교 1학년 조카가 6학년 몇 명과 일부 중학생으로 보이는 다수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는 지난 4일 오후 4시30분~5시20분 사이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 있는 축구장과 놀이터 등이다.

당시 피해 아동 A군은 축구장에 들어가려다가 먼저 있던 아이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 과정을 CCTV로 봤다는 글쓴이는 “먹살이 들린 채 쫓겨났다”며 “그 뒤에 조카가 얼어달라고 하니 큰 애들이 축구장 문에 대고 발길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군이 맞서면서 폭행을 당했는데, 화가 나자 가해자 중 한 명의 휴대전화를 던져 금이 갔다고도 전했다.

이후 다른 아이들이 A군을 데리고 놀이터로 가 “몰어내라”며 30분 넘게 붙잡으며 폭행을 이어갔고, 집까지 찾아와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글쓴이는 “CCTV를 확인한 결과 태클을 걸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밟고 있거나 짐짝처럼 들어 쫓는 등 10명 정도가 A군을 둘러싸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러나 가해 학생 및 보호자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때린 적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분개해 했다.

그러면서 “A군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트라우마 증상까지 나타나 치료를 고민 중”이라며 “경찰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8시17분께 게시된 해당 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875개의 추천을 받았고 조회수도 4만을 돌파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미래 폭력 조직이냐”, “무서워서 애들 혼자 다니게 못하겠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진 안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중에는 “요새 저학년 애들이 야구나 축구를 하려고 하면 고학년이나 중학생 이상 애들이 욕을 하고 쫓아내는 경우가 많다”, “평일 낮 수만

지구 롯데마트 사거리와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7~9명이 짓밟게 노는 걸 봤는데 그 애들일 수도 있겠다”는 댓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북구 신원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B군이 또래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출석 통보를 받고 자진 출석했으며 협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찬용 기자



“겨울엔 군고구마가 딱~” 12월 금남로 차 없는 거리가 지난 6일 오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려 시민들이 군고구마 파티에서 따뜻한 고구마와 함께 겨울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 주말·휴일 광주·전남서 잇단 화재...재산피해 多

신안 양파 탈피 공장 6억 이상 손실 등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에서 화재가 잇따라 재산 피해가 크게는 6억원에 달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7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3분께 신안군 압해읍에 위치한 양파 탈피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동이 절반가량 타고 저온창고가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 등은 공장동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6일 오전 5시58분께에는 담양군 용면의 한 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시간27분에 걸쳐 진화 작업이 이뤄졌다.

공장 창고는 전소됐고 지게차와 활성수 제조기가 불에 타 재산 피해가 1억2천673만원 정도

로 추산됐다.

같은 날 오후 6시46분께 순천시 연향동 한 아파트 4층에서도 불이 났다.

불은 실내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아파트 안팎으로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 40여명이 자력 대피했으며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 검찰, 체포 중 도주 피의자 나흘 만에 검거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도중 달아난 피의자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광주지검은 지난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잠시 집을 쫓겨갔다가 자신의 차로 가더니 그대로 시동을 걸고 도주했다.

이후 광주지검은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공조를 요청하며 A씨 추迹에 나섰고 도주 닳새째가 돼서야 검거에 성공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검거 경위와 도주 과정에서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도주 전 A씨는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체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안재영 기자

## 보성서 열차-차량 충돌...60대 운전자 사망

보성 한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와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7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보성군 조성면 한 철길 건널목에서 세마을호 1088호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6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건널목 차단기는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

던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A씨가 통과를 시도하다가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50분께 순천시 조곡동 한 철길에서도 B(70대·여)씨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B씨가 사망한 지점은 건널목 일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역 경찰은 A·B씨의 사망과 관련,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 “방에 갇혔어요” 출동했더니 성매매 영업장

“방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매매 영업 정황을 확인, 수사 중이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따르면 최근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돈을 준다는 남자를 따라 들어왔다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호수가 특정되지 않아 건물

내 모든 세대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조사했다.

경찰은 수색 과정 중 일부 세대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과 진술을 확보하고 포주로 추정되는 A(40대)씨와 B(20대·여)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연상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종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5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종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종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5g/5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